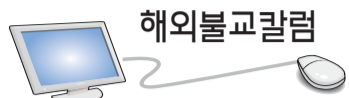


# 고대 '卍' 의미는 현대의 '웰빙'



언젠가 일본을 거쳐 서울에 온 유럽의 배낭 여행 종각이 농담 삼아 들려준 얘기가.

일본에서 관광안내지도도 펼쳐보다 여기 저기 나치의 상징인卍이 나타나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불교사찰의 표시더라는 좀 썰렁한 우스개였다. 그런데 그보다 심히 웃겨준 경우도 있다. 어느 분이 어디서 두뇌세척을 당한 건지, '불교와 나치가 똑같은 악의 상징을 쓰는 것만 봐도 불교의 정체가 드러난다'며 열을 올렸다. 무식하면 옳감하다는 거기에 눈먼 믿음마저 겹치면 실로 공포 그 자체다. 그림 늘 가득 채워지고도 비어있는 듯 차분한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종교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체로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자면 먼저 추구하는 교의(doctrine)가 선행되고, 이를 파급 전달하기에 적절한 의식(ritual)과 집회(congregation)가 형성된다. 즉, '생각과 말'이 '행위'로 이어지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무리'가 생겨난다. 또 그에 즈음하여 그 믿음의 표상이자, 연대의식과 자긍심을 유도하는 고유적 상징(symbol)이 나타난다. 그 표현방식은 문신, 분장, 피어싱, 할레 등 신체적 외관변형, 별도의 호칭이나 은어(隱語), 춤과 무드라 등 특수동작, 주문과 만트라 등 음성적 율장, 그리고 부적이나 의상, 기치(旗幟), 문양(紋樣), 만다라 등 매우 다양하다. 일종의 암호이자 의사전달 기호인 이러한 상징들은 구성원 간의 목시적 상호교신의 방식이기도 하다.

옛적부터 불교, 사찰 등의 상징으로 통용되는卍 문양은 약 3000년 전 인류문명의 사대발상지 중 두 곳인 현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굴된 목걸이 등에서 최초의 흔적을 보인다. 그 후 바빌론, 아시리아 등 현 중동일대에선 점차 사라지고 유라시아 일대에 등장한다. 벨기에의 브뤼셀자유대학



불교를 상징하는卍자는 뜻대로 잘되지 않는 의미와 화합 원용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은卍자를 응용한 상품.

교수인 고블레 달비에아 백작은 1891년 <상징의 이동>이란 종교고고학 저서에서卍과卐 등 여러 상징물의 이동경로에 관한 탐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문양은 본디 서로 의미상 차이가 없으며 공통적인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스와스티카(Swastika 또는 Svastika, Suastika)다. su는 좋다(good), 그리고 asti 또는 vasti, 즉 존재함(to be)이 합쳐지고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여성형 접미어인 ka가 더해진 것이다.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는 좋은 삶이란 뜻의 웰빙(Well-Being)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길상여의(吉祥如意), 즉 '뜻대로 잘 되어지시라'로 해석된다. 동시에 화합과 원용의 의미도 지니는卍은 인도의 토착신앙인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불교로 이어진다. 그리고 '동방전법'의 길을 따라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다.

이는 또 다른 불교 상징인 법륜(法輪)이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된 '서방전법'의 길을 따라 지중해연안의 현 그리스, 발칸반도, 이집트, 이스라엘까지 이른 사실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卍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개, 회오리, 소용돌이 등 불가항력적 자연현상, 또 중국 한(漢)나라 때는 혜성을 상징하며 일

본에선卍을 만지(萬字)라 하여 위대함과 장엄함을 뜻한다.卍은 기독교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북미대륙에 살던 원주민, 이른바 인디언의 일부 부족도 사용하며, 2차 세계대전 이전엔 미국의 육군항공대 휘장, 제45보병사단의 견장, 그리고 여성용 고급 액세서리에도 행운의 상징으로 쓰인다.

갈고리의 네 끝머리가 시계방향인卍은 기원전 7백년 경 현 터키북서부의 트로이, 그리스 등에서 도자기, 화폐, 투구, 복식의 기하학적 실용 디자인으로 널리 활용된다. 그리스에선 그리스문자의 셋째 글자인 감마(Γ) 4개가 겹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라틴제국에선 크룩스 감마타, 즉 감마십자문양이라 부른다.

또 네 개의 팔다리를 굽히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닮은 이 문양은 테트라스켈리온, 즉 행운의 전령(傳令)을 상징한다. 특정한 신앙 상징물들은 상호배타적이어서 동일한 문화권에서 함께 사용될 수 없으나, 고대그리스에서는 태양, 최고신, 생명력의 상징으로卍과 십이 함께 쓰인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절대유일신의 숭배사상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달비에아 교수의 주장이다. 성휴 스님

참조: The Migration of Symbols, Swastika: It's time to learn the difference 등

## 中·美 호전적 모험주의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 최강국은 인도

1960년대 티베트에서 수계한 최초의 미국인 라마이자 작가인 로버트 서먼교수는 지난 4월 14일 "중국과 미국이 세계전역에서 지원하는 호전적 모험주의(militant adventurism)에 대해 최강의 도덕적 억제력을 지닌 국가는 인도"라고 단언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불자인 여배우 우마 서먼의 부친인 그는 '티베트, 휴머니티를 위한 필수적 평화지대'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양국의 호전적 모험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인도'라고 강조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인도 티베트 연구소의 창립자 겸 지도교수인 그는 인도와 티베트의 특별한 역사적 교류와 유대를 환기시키며, 티베트의 자치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IANS

## 투룩람투바초마 선학원 개원 법회

4월 21일 베트남의 중부 투아티엔후에 지역의 불교 승가종은 수천 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록 지역에 미화 약 90만 달러를 들여 신축한 투룩람투바초마 선학원의 개원법회법회를 개최했다.

원장 티담한 스님은 동 선학원의 개원이 베트남 민족정신과 불교를 하나로 묶는 단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출처: VNS

# “동양무도로 몸과 마음 단련”

##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17세에 일본으로 무술 유학을 떠난 스티븐 시걸 도반은 합기도 수련 초기의 개인코치이자 여자친구인 후지타니 미야코(藤谷美也子)와 함께 오사카에 머문다. 거기서 그는 영아강사를 하며 십여 년의 강훈련 끝에 아이키도(合氣道) 7단까지 이른다. 뿐만 아니라, 가라테(空手), 주도(柔道), 켄도(劍道) 등의 달인이 되며, 서양인으로선 최초로 일본에서 합기도 도장의 관장이 된다.

서구인들은 흔히 불교와 더불어 동양무도를 일종의 생활철학으로 여긴다. 몸과 마음과 닻이 함께 어우르는 동양무도는 폭력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불교 등 비폭력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상대의 폭력에 대한 견제와 사전차단이 목적인 동양무도에선 유연한 방어가 곧 강력한 공격이 되며, 더 나아가 상대방의 공격의지마저 꺾는다. 그런 까닭에, 먼저 치고 드는 선제공격 위주의 서양격투기와 상당히 다르다. 후일 텐신 합기도관장이 된 에이인 후지타니 미야코 6단과의 첫 번째 결혼으로 남매를 둔 스티븐 시걸도 받은 지금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종 일본어로 할만치 유창하다.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15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무술도장을 새로 열고 저명인사들의 개인경호사업도 벌인다.

그 자신이 직접 보디가드를 맡아 해운 인사를 가운데 하나인 마이클 오비츠의 주선으로 그는 워너브라더스와 무술영화제작의 계약을 맺는다. 그가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과 함께 만든 최초의 영화로 1988년 개봉된 '무법천지'는 통상적인 경찰수사극의 줄거리지만 주인공의 캐릭터를 강조함으로써 초고감도 액션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의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는 순식간에 액션물 애호가들 사이에 대 스타로 떠오른다. 그 후속으로 '살해방식'과 '포위포섭', 그리고 '전격' '초주검' 등이 림만으로도 으스스한 액션물에서 굵직한 연기자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느닷없이 '침묵의 요새'란 알라스카의 환

경보호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감독으로 일대 변신을 한다. 그런데 그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행적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고 때론 심심찮게 이런 저런 입방아에도 오른다. 1997년 11월 미국의 어느 우수 불교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침술 등 동양의학의 고급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티베트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그는 일본이 아닌 아시아의 모 지역에 있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진, 그리고 중국군에 의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티베트 승려들의 치료를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 정황을 헤아려볼 때 한 때 그가 인도의 북부지역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 MIT 불교학생회 다양한 전법활동

## MIT 불교학생회 다양한 전법활동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티베트난민에 대한 의료행위를 계기로 모종의 비밀공작의 지도책을 떠맡았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안가와 아지트, 비밀연락망, 보급 커넥션 등도 설립했다고 하니 누구든 열추 집작이 가는 일을 했었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밖에 미 중앙정보국과의 공작연루설 등을 둘러싼 불투명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딱 잡아떼며 시종일관 언급을 회피한다. 또한 그가 '티베트 자유 투사'라는 이름의 무장투쟁단체를 이끌고 투쟁했다는 게릴라 작전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입을 굳게 닫는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1997년에 이르러서야 '예전에 어느 종교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적이 있던 하다'는 답변 정도로 말꼬리를 접는다.

언제 어디서든 진실은 하나지만 해석마저 꼭 그렇지는 않다. 그의 야릇한 행적이 젊은 날의 객기였는지, 비정규전의 소모품 역할이었던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액션스타로서 그의 몸값을 '천하무적 랍보'처럼 부풀리려는 할리우드 프로모터들의 뺨치기였을지도 모른다. 성휴 스님

##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Oh, the taste of the sea, so divine! Forgive me, Lord Buddha.

### 이 거룩한 바다의 맛이여!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A renowned Japanese master with his mouth watering at a dish of octopus sashimi couldn't stand the fresh smell of it any longer. Eventually he picked a piece of it into his mouth and sang, "Octopus! Lots of arms, just like Kanon the Goddess; Sacrificed for me, garnished with citron, I revere it so! Oh, the taste of the sea, so divine! Forgive me, Lord Buddha, this is another precept I just cannot keep."

옛 일본의 고명 선사 한 분이 문어 요리에 줄곧 군침만 삼키다 그 상큼한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한 점을 집어입에 털어 넣고서 노래를 한가락 읊었다. "문어야, 나는 미치 권음보살님처럼 팔도 많구나. 굶김질로 고행을 얻어 너를 위해 희생을 하니 참으로 존경스럽도대야, 이 거룩한 바다의 맛이여!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이 또한 제가 지키지 못할 계율이옵니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중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 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 “기도의 비밀”? 정답 지금

신국판 | 292쪽 | 15,000원 | 국민은행 562101-01-033348 권운정사 02-943-8573  
\*찾아오시는길: 4호선 김유역3번출구 - 정릉 청수정거장은 버스 - 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권운정사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장인정신이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